

최전방의 신체들

- 폭력 이후의 인간

엄문희

아름다운 붉은 선
2024년 11월 23일



월정리 불침번

전기장판이 익는데도 코가 시리다
월정리 뚱뚱 앞 불침번 컨테이너
이 겨울을 몇 번씩 지나온 여자들 곁에서
나는 차마 늙지 못해 괜한 괘과리를 만지작

새벽 두 시 어둠 속으로 달려오는 비
스무 발걸음 앞 20미터 폭력발전기는
반짝반짝 도깨비 눈바람으로 웅웅
바람이 갈라졌다 돌아오기를 천 백 번
그 통에 머리통은 통방소리로 된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여자들인데
도깨비와 남자는 무섭단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 그것들이
어떻게 이 여자들은 잘도 협박했을까
새빨간 장미담요를 나눠 덮은 바다가
자다가도 낮고 낮게 신음소릴 낸다

문 앞은 파수꾼의 자리, 지금 내 자리, 불침번 대장의 자리
맨 먼저 뛰어 나가야 하는 자리
영자삼촌이 오줌 마렵다고 속삭이면
잘 됐다 여자 넋이 다 나가고
그때마다 열쇠를 품고오는 자리

진빌레에 가난한 모래밭에다 당근을 심는 할망의 자리
무주리 뚱뚱 앞에서 바다를 지키는 불침번의 자리
관청 마당 한뼉장 끝 담을 넘어 울고불고
서방한테 혼나고
아들한테 혼나고
청년 계장한테 또 혼나고
사장님 계장님 팀장님 공사업체 남자들한테도 혼나는 자리

오늘도 월정리 바다로 구멍 난 시름이 흘러간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지붕도 없는 하늘 아래 방치한
무엇 때문인가? 가장 가까워서 가장 멀리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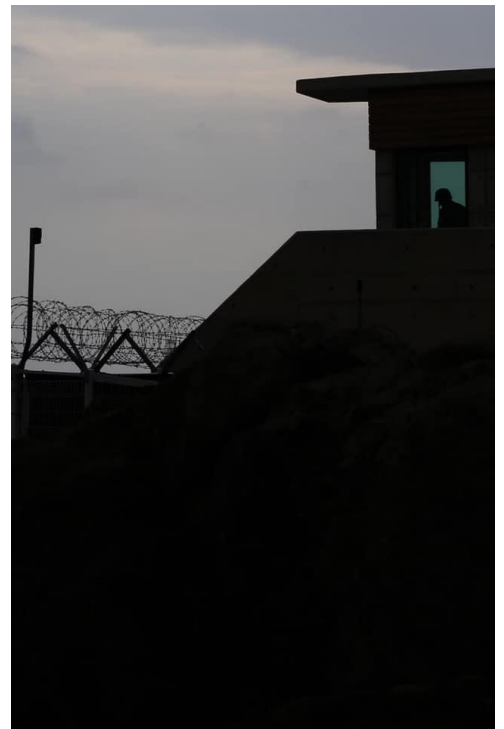


잃어버린 마을 강정

두 개의 마주보는 점빵 사이로
버스를 기다리는 까만 밤 우산
잃어버린 마을 큰길에 사람이 없다
계절 끝에 부서진 강정 굴 상자
그 위에 비 맞고 물 먹어 터진 깃발의 이름
이게 다 뭐라고 코가 뻥 시다

우산을 깊이 눌러쓴 친구가
진동 없는 걸음으로 돌아가는 집
타는 숲 빨간 하늘에도 비가 왔을까
그때는 고작 밤 9시, 평화로운 담벼락
이 시골에도 막차는 아직 멀었는데

올다 지친 마을인가 사람이 없다
금지를 잃은 목소리는 비를 부르고
흔들리는 반가움을 속이느라
삼촌은 고양이보다 빠르게 간다



최전방 (最前方) :

적과 맞서는 맨 앞의 전선(戰線) (front line)

국가 폭력의 현장이자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일상화되는 장소, 투쟁 현장을 둘러싼 역동 전반.

신체 :

투쟁자들. 커머닝을 실천하며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서로부터 억압 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커머너들. 정신과 분리되지 않는 인간 실체의 모든 것. 삶양식과 태도. 정치적 입장과 감수성의 근거가 되는 몸의 좌표 모두를 일컫는다. 외상을 경험하고 투쟁하는 인간.

트라우마 (trauma) :

외상. 영구적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 전쟁, 대참사, 재난 같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장애.

사회적 트라우마 :

트라우마는 ‘사건 그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과정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즉 트라우마는 사회·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탈 맥락화된 개인에 집중하거나 단지 증상을 누르는 치료에 해당하는 항우울제 약물치료나 심리·의료적 치료방법의 한계를 질문하며 등장한 개념.

도덕적 손상 (moral inju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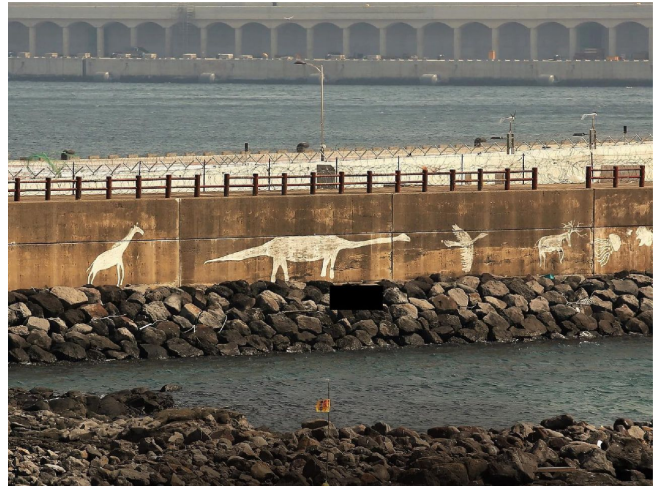
1. 비윤리적인 일을 경험한 후 분노, 슬픔, 자기비하,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2. 전쟁 참전용사들이 지역사회로의 복귀 후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PTSD라는 정신 병리적 진단과 개입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탈-맥락적임을 인식하면서 제안된 개념. (Shay)
3. 부도덕한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동 상태를 단지 개인적 정신 병리로 접근하는 단순회로에서 벗어나고자 시도 됨.
4. 이 발표에서 해당 개념은 국가와 대립하는 커머너들이 갖게 되는 외상을 단순히 정신병리학적으로 분류하는것에 부동의하며 사회질서를 재배치하거나 되찾기 위한 커머닝 실천 과정에서의 좌절감 가운데 공포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멸과 도덕적 상처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함.

기존의 트라우마 연구는 공포라는 생존기제에 기반을 두었지만 수치심, 죄의식 등의 도덕감정은 설명하지 못했다.

개인 내면의 병리적 원인으로 여겼던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도덕적이고 정치·사회적 맥락으로 전환시켰다. 폭력의 주체가 정치적 권력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있어서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관념을 확인하게 한다. (Herman)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사회적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된 모든 생자들이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트라우마를 개별성으로 다룬 경우엔 폭력을 지휘한 주체를 가려내는 것에 집중해왔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폭력상태를 방임(외면)한 사람들에게 대한 앎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갖게 된 정치·사회적인 이유(맥락). 그들은 누구이고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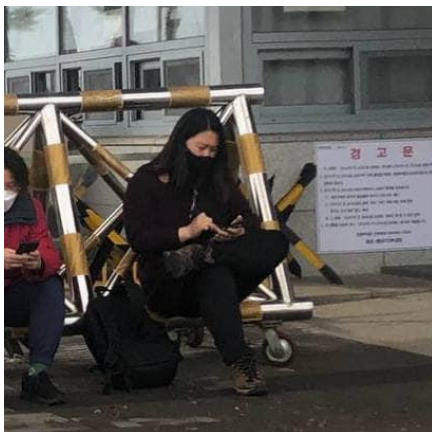


수평선이 사라진 강정해안 (2016)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이주민 여성



제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투쟁

해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군함에 맨몸 카약으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구호는 “내가 (여기)있다“ 였다.



해군기지진입도로 등 신설된 도로를 두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군용차들



때로 국가는 필요에 따라 마을 전체를 봉쇄하는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강정의 모든 문화제 활동을 강하게 억압하며 사실상의 집시법 허가제를 강요하고 있다. 매일의 저항 문화제를 벽처럼 둘러싸기 시작했다.



강정마을 거주 활동가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특히 소속활동단체 없는 개인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관찰 결과 해녀들은 남자들을 무서워했다.

모욕감과 무력함을 자주 호소했고, 해녀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느꼈다.



결국 월정리 해녀들 곁에 머물며 불침번을 서고 연대를 조직한 이들은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었다.

강정마을과 월정리 사례가 도덕적 손상의 개념으로 탐구 되어야 하는 이유 :

1. 구조적 폭력을 감지하는 인간 좌표들 - 여성, 성소수자, 해녀(특히 해녀는 제주에서 다양하게 타자화 된 여성집단)
2. 사건, 그리고 재난의 법칙들 - 가부장제, 차별, 타자화, 무시, 전가, 식민지.
3. 신뢰가 깨진 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관찰되는 곳 - 주민
4.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현장의 시도들 (공동체 되기)



도덕적 손상을 치료(회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과 현장의 감각적 시도들 :

용서하기, 신뢰 회복하기, 관련된 경험 털어놓기, 권위자와 상상대화하기 등. (Nash)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되게 하기 등. (Shay)

현장의 실천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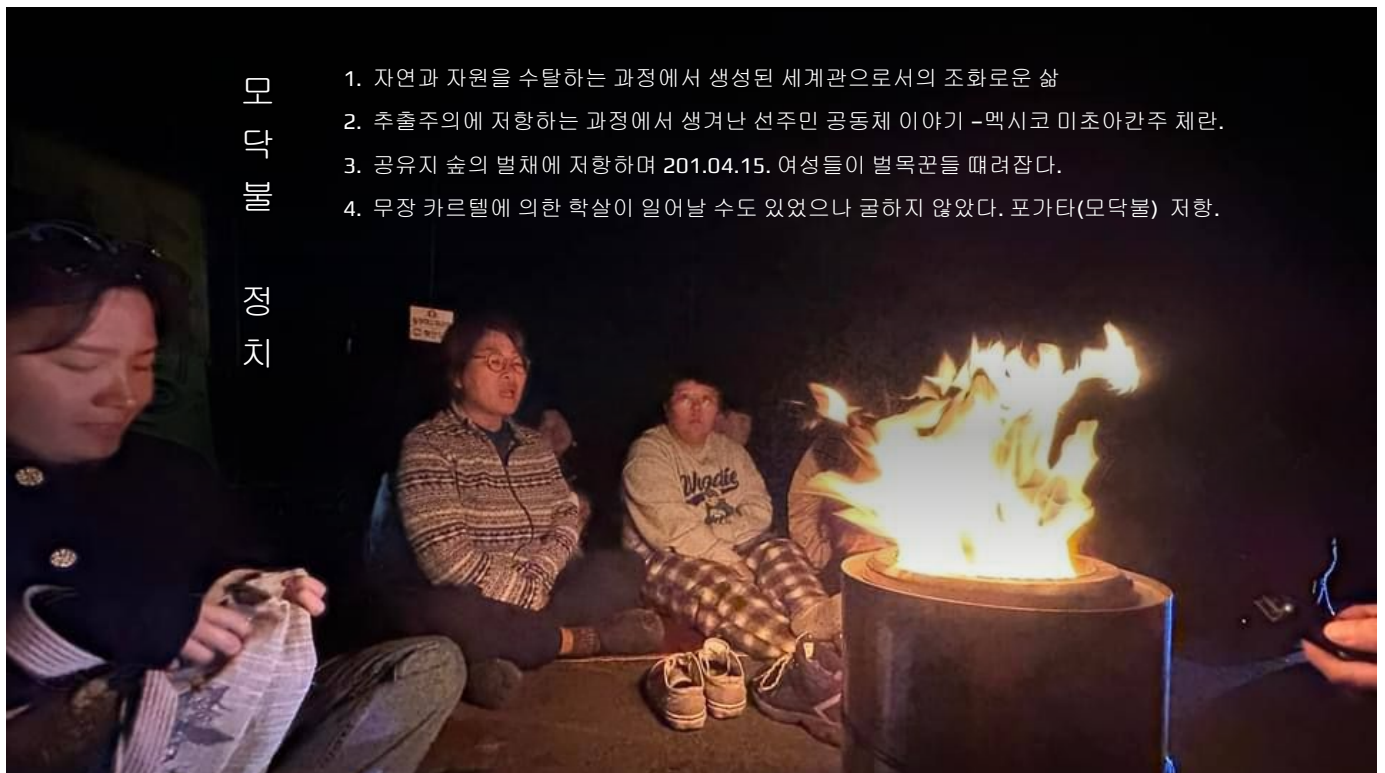
모닥불 정치 : 멕시코 체란의 모닥불 혁명

수놓음 : 공동작업의 약속을 통한 새로운 질서들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다)

몸을 느끼다 : 성. 사랑. 춤. (살아 숨쉬는 존재 되기)

병역거부 : 병역(폭력)의 범위를 되찾기. 맥락(경로) 탐구. 무엇이 폭력인가?

말하기 : 기록. 발언. 성명. 시. 아카이빙. (기록은 상처를 치유한다)



모닥불 혁명 :

꺼지지 않는 삶. 어둠을 사르는 삶

(이송희일)

1. 포가타(모닥불) 피우기. 여성 주도의 회의
2. 불 앞에 모여 앉아 마을의 운명과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 할 지 이야기 나눔. (불침번)
3.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정치를 구성하자는 합의와 약속들.
4. 벌채로 파괴된 숲의 재자연화. 이자가 없는 대출. 아보카도 같은 '제국주의적' 생산 금지 약속
5. 공동체의 터전을 일구는 변혁적 과정에서 동반되는 삶의 재생산성에 대한 상상력들
6. 낙오자 없는 공동체. 배신하지 않는 동료.



외상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따라서 사회적 트라우마와 연결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된 모든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가능할까? 현재는 재난공동체 작동 정도)

강정천에 물들다
화산섬 제주의 지하수와 용천수

구림비생태공동체

해군기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평망물과 정의논각

2024년 7월 7일 (일) 오후2시
문의 : 010-9207-9327 열치

수변공원 조성사업 명목으로 2018년~2020년 95억원을 투입해 평망물(용천수) 인대와 정의논각(소하천) 0.99ha 구간이 정비(파괴)되었고 있다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주강정 물에 물들다

강정천에 깃들다 - 일제강점기 담팔수와 숲일꾼 이야기

일시 : 2024년 7월 13일 (토) 저녁 8시
장소 : 할치네강방
문의 : 010-9207-9327 (문자포)

자연 습지 구간이자 "담팔정"의 맥락이 이어진 용천수 지대를
2024년까지 총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해군기지와 연계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맞서

강정, 물愛들다
강정마을 구림비 생태공동체

일시 : 2024년 7월27일 오후2시
장소 : 강정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문의 : 010-9207-9327 (문자)

1. 기록은 상처를 치유한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
2. 말하기의 힘 (증언, 털어내기)
3. 기록은 공동체를 만든다
4. 몸짓, 노래, 그리기 라는 기록. 기록과 신체성.
5. 문제를 감추지 못하게 하는 싸움의 기술

해녀항일가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꽃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렸으나 버는 것은 기 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술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 하도다
가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